[취재요청] \'전의경제 폐지를 위한 연대\'결성 기자회견 취재를 요청합니다.

2008년 7월 6일 오전 6:25

문서번호 : 08-0705-1

발　신 : (가칭) 전.의경제 폐지를 위한 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제　목 : ‘전의경제 폐지를 위한 연대’ 결성 기자회견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12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이계덕 상경이 “촛불시위 진압에 나서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일”이라며 육군 전환복무 신청을 했습니다. 이계덕 상경은 현재 근무태만의 사유로 영창에 수감되어 변호인과 가족 외에는 접견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대원들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3. 이계덕 상경의 문제제기와 이계덕 상경에게 내려진 부당한 징계를 계기로 몇몇의 시민사회단체들과 개인들이 전의경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계덕 상경에게 내려진 부당한 징계를 철회시키고 더 나아가서 전의경제도가 가지는 많은 문제점들을 사회적으로 공론화 시켜서 마침내 전의경제도를 폐지시키고자 합니다.

4. 국가가 합법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폭력의 수단인 전의경제도에 대해서 시민사회 각계에서 그동안 많은 비판들이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졌지만 경찰당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의 촛불집회에서 불필요하게 시위 참가자들을 도발한다던지, 평화적인 집회에 단순 참가한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른다던지 하는 사례들은 현행 전의경제도가 가지는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줍니다. 전의경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개인들이 모여서 전의경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5. 이에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6. 감사합니다.

일시 : 2008년 7월 7일 (월) 오전 11시

장소 : 참여연대 지하 강당

<순서>

1. 이계덕 상경 부당징계 사건에 대한 경과보고 - 염형국 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2. 촛불집회에서의 경찰폭력에 의한 인권침해사례 보고 -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3. 전의경제도의 폐단의 역사와 시민사회진영의 대응에 대한 경과 -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4. 전의경제도 헌법소원에 대하여 - 박석진 (전의경제도 헌법소원 당사자)

5. '전의경제 폐지를 위한 연대' 결성문 낭독 - 임종인 (변호사)

문의 : 여옥(전쟁없는세상, 010-5183-0036)/ 이용석(전쟁없는세상, 016-854-0851) / 최정민(평화인권연대, 017-311-4245)

(가칭) 전의경제도 폐지를 위한 연대 참여 단체 및 개인

공익변호사그룹공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강의석, 구종우(한의사), 임종인(변호사), 이재승(건국대 법대 교수)